

“공시가격 정상화, 불공정 바로잡기”

평화당 정동영 대표 “비업무용 토지 개념 다시 살려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조치에 대해서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불평등, 땅값과 집값으로 인한 부동산 불평등에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0% 미만이고, 서민주택은 75~77% 기준으로 매기는 등 정의가 불구 나무숨기

때문에 저와 민주평화당은 끈질기게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평가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10억 평을 사재기했다”면서 “땅값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다시 살려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순해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 매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 공직자들 다 부동산을 사도 면책되는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진성 기자



숙이 딱 찬 한라봉 지난 25일 원주군 삼례읍의 한라봉 농가에서 농민들이 숙이 딱찬 한라봉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 운영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5일까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 지난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핫라인은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피해구제 민원을 접수하여 3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택배서비스와 명절선물 수요 급증으로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북지부가 공동으로 택배, 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깨끗한 조합장선거 분위기 조성

전북도선관위 ‘우리조합 씩씩썩썩’ 캠페인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우리조합 씩씩썩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 모임인 공명미 사랑 나눔회 회원 및 조합원 등 20여명이 순창군 블루베리농장을 방문해 넝쿨 및 비닐하우스 제거 등 고령의 농민들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북선관위는 이번에 치러지는 제2

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선거 등 위법행위 없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이번 농어촌 정화 캠페인을 추진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내장산국립공원, 군산 선유도 일대 등에서도 ‘우리조합 씩씩썩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처럼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조합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익산서 마을만들기사업 사전 컨설팅

일정공유 등 전문가 자문

전북도는 지난 25일 익산시 용머리 권역마을에서 2020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일체적 개발을 통해 농촌 지역 어디서든 기초 생활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컨설팅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 중인 9개 시군(군산, 김제, 진안, 장수 제외)업무담당자 및 마을별 추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2020년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일정공유, ▲계획서 작성요령,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서가 준비·신청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7개 시군 13개소(종합개발), 11개 시군 44개소(마을개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개소당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다음달 11일까지 농식품부에 예비계획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3월중 도 심사, 4월중 농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7월 말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축구종합센터, 장수가 최적’

제한 부지 중 40%가 군 유지, 나머지는 즉시 확보 가능
열대야 없는 고지대 위치해 훈련효과 배가시킬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가적 명분·당위성 등도 확보 가능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마감으로 전국 24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이 지리적 접근성과 친환경 경적인 자연환경, 경제성 등을 앞세워 장수군을 최적지로 부각시키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장수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지난 25일 장수군은 제2NFC 공모에 참여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많은 장점을 보유한 지역이라며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청정환경, 풍부한 인프라, 국가균형발전 등을 앞세워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장수군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의 용이성이다. 제한 부지 총 42만 7,823㎡ 중 40%가 군유지이며 나머지 사유지는 업무협약을 마쳐 즉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가 4억여 원 수준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두 번째는 고지대 청정 환경 여건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훈련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전국 미세먼지 기준대비 33% 수준의 지역(에어로리아 자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 번째로 대상지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상호보완 등 발전가능성 크다. 사업부지 인근에 나들리조트와 10km 스키로드, 와룡휴양림, 스키장 협장 등이 위치해 산악 체력훈련이 가능하다. 또 조성 중인 그린장수 치유의 숲과 성분이 우수한 나들리조트의 푸른물 온천욕 등 훈련 후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 등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명분과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군단위 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등 극단적 표현 속에 지역 인구감소는 지역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

으며 인구 2만 3,000여명의 장수군은 전국 최하 3위 수준의 열악한 지역이다. 장수군은 지역브랜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과와 한우 등 농·특산물과 축제를 중심으로 지역 인지도를 높여왔으나 군의 활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축구종합센터는 10만명 이상의 규모의 축구 인프라와 300여명 상주 시설 등 대규모 사업으로 대표팀 훈련 뿐 아니라 교육과 전시 등 다양한 분야가 연계돼 있다. 장수군에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 가치가 동반 성장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 810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돼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예상된다. 이밖에도 장수군은 고속도로 3개 노선과 국도 3개 노선이 관통해 도로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세만급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팀 소집 훈련 등 각 지역에 위치한 선수단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정영수 장수군수는 “사업추진의 용이성과 풍부한 연계 인프라, 천혜의 자연환경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부각시키고 대한축구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대한민국축구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와 신년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지난 25일 전북농업인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2019년 전북농업인단체 신년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김석준 회장,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

장, 농협중앙회 유재도 전북본부장, 농어촌공사 박종만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에도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더불어 잘사는 농업을 만들자고 다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